

for 2020

문 학 후 련

set 1

문제 - 정답

보쌌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상무와 비서가 일하는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에 대기업의 총수인 노파가 유실물을 찾고 싶다며 찾아온다. 노파는 유실물로 들어온 꽃다발의 향기를 우연히 맡게 된다.

노파: 이거야, 이거.

노파 또 한 번 꽃의 향기를 맡는다.

상무: ㉠ 나, 참!

비서: 할머니,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무: 난 벌써 알고 있었어. 미쳤다니까.

비서: 할머니가 찾은 것은 그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예요.

상무: 향기

노파: 그래, 향기.

노파는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고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다. 비서가 노파 쪽으로 가 손을 잡는다.

비서: 할머니, 아까는 결례가 많았어요.

노파: 응? 괜찮다. 괜히 찾았구나. 마음이 더 허전하다. 아까 색시가 얘기했지? 잃은 물건도 찾아야 할 것이 있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고. 나는 일생을 향기를 잃고 헤매었구나. 그러나 막상 찾아보니 이미 늦었어. 이렇게 되면 잃은 물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람은 반쪽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나봐.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은 허무한 일인가 봐. 자, 가볼까. 내 비서놈들은 어디를 싸다니지? (입구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더니 가방을 뒤척이며 수표 한 장을 꺼낸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

비서: 또 한 가지요?

노파: 잃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러나 ㉡ 다시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자, 수표다.

비서: 수표요?

노파: 돈이란 말이다. 갑자기 잃고 싶구나. 받아 뒤라. 꽃의 향기를 사려면 이만 한 돈이 있어야 한다.

(중략)

상무: 꽃 냄새. 냄새가 좋은데. 이상하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

비서: 무슨 생각인데요?

상무: 어릴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매미를 잡던 일…… 냇가에서 송사리를 몰던 일…… 눈 속에서 뒹굴며 놀던 일…… (갑자기 일어나며) 젠장!

비서: 왜요?

상무: 빌어먹게 마누라의 얼굴이 떠올라! 나 참! 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나?

비서: 아뇨 틈이 없었어요. 지금 걸지요.

상무: ㉢ 그만 뒤! 내가 걸게. (상무가 책상 쪽에 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 나야, 나, 뭣이? 나란 말이야! 아니, 무슨 여편네가 남편의 목소리도 몰라봐? 뭐라구? 전화를 통해 내 말을 듣는 건 생전 처음이라구? 그런가? 참말이야, 나란 말이야! 뭣이? 나 참! (수화기를 세차게 놓는다) 날더러 미쳤대. 아, 그럴 수도 있잖아? 회사 일이 바쁘데 전화를 걸 틈이 어디 있어? 10년이 됐군. 집에 전화를 걸어본 지도 흠!

상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비서는 장부를 펼친다. 문이 열리며 점원이 들

어 온다.

점원: ㉣ 아까 그 할머니는 어디 갔죠?

비서: 나갔어.

점원: 어디로요?

비서: 몰라.

점원: 찾아야 해요. 비서들이 야단이에요. 비서님은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요?

비서: 몰라.

점원: 굉장한 분이예요. 빨리 찾으시다.

비서: 나 일이 바빠.

점원: 아니, 비서님은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예요? 나 참!

점원이 혀를 차며 나간다. 이어 상무가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와 전화를 건다.

상무: 나야 이젠 알겠어? 고맙군. 나 이제 집으로 갈 참이야. 응, 회장님을 만나고 사표를 내기로 했어. 너무 바쁘니까. 그래, 곧. 왜 이래? 왜 우는 거야? 뭣이 사표를 낸다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기뻐서 울어? 나 참!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수화기를 놓고) 재수 없게 울고 있어! 여자란 참!

비서: ㉤ 사표를 내요?

상무: 응,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수고가 많았어. 참, 꽃방이 어디 있어?

비서: 이 백화점 지하실에도 있어요.

상무: (책상에 있는 꽃을 보고) 이만한 꽃다발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비서: 한…… 500원쯤.

상무: 그렇게 싼가? 그럼……

상무가 뛰어나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비서는 책상 한 모퉁이에 있는 수표를 든다. 잠시 망설이다가 잘게 찢는다. 손바닥에 찢은 조각을 놓고 후불어 버린다. 수표 조각이 마루에 흩어진다. 이어 장부를 보며 전화를 건다.

(A) 비서: 안녕하세요? 신용과 상품의 질을 생명으로 하는 신대륙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입니다. 댁에서 신고한 유실물을 찾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도장하고 시민증을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서서히 막이 내린다.

- 이근삼, 「유실물」-

1.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무'는 ㉠을 말할 때 표정과 말투를 통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② '노파'는 ㉡를 말하면서 '비서'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표를 내 주어야 합니다.
- ③ '상무'는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를 내보이며 '비서'를 향해 ㉢을 말해야 합니다.
- ④ '점원'은 '비서'에게 다급한 어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⑤ '비서'는 ㉤을 말할 때 '상무'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심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 <보기>는 위 작품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작가는 이 작품에서 욕망에 얽매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 현상에 주목한다. 현대인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의 전도 현상으로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 작가는 관객들이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뿐 아니라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상무'의 지난 삶은, '정신적 불구'자로서의 현대인의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노파'와 '상무'에게 깨달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꽃의 향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상무'의 아내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은,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수표'를 찢어 버리는 '비서'의 행위는,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한 방법임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노파'가 '꽃의 향기'를 접하고 느끼는 허전함은, 물질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느라 허비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라 할 수 있어.

3. [A]가 관객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할 때, 그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 ②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인물들의 어리석은 면을 환기시켜 희극적 재미를 준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⑤ 진정한 가치의 회복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여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태희는 낮에 강도가 침입한 이웃 경주네 집에서 경주 엄마와 함께 밤을 지낸다.

개업식은 오후 두 시였지만 그녀는 일찌감치 집을 비워두고 시내로 나갔다. 긴 겨울 방학에 이어 다시 봄 방학까지, 남편과 같이 있던 날들의 답답한 호흡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남편의 출근이 시작되자마자 그녀 역시 바깥 세계로 나갈 작은 희망 사항을 하나 가슴에 품고 있던 중이었다. 그저 한가한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보든가,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 둘러본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근처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뛰어다니는 신입생들의 가슴에 매달린 흰 손수건이라도 쳐다보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하루는 터무니없이 길었다. 게다가 아이를 갖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내는 하루는 그 얼마나 멀고 먼 모래밭인지.

㉡“모두가 운이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재수가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봐요, 이런 유의 가정 파괴범까지도 득시글거리는 세상인데.”

젊은 나이답지 않게 여자는 팔자소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당한 쪽의 편에서 팔자에 대해 한층 너그럽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그해 여름 느닷없이 증발되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멍든 욕신으로 되돌아 왔을 때 태희는 경악과 분노로 차라리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비교적 운이 좋았던 거야. 하기가 원래도 별다른 행동거지를 내보인 적도 없었고, 다들 들어갔다 하면 고장 난 몸뚱이로 일 년 이상 썩는 게 예사니까. 푸른 물감 통 속에서 갓 빠져나온 듯한 몸뚱어리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때때로 낮은 신음을 뱉어가며 그는 자신의 몸을 신통한 기계나 내려다보듯 구석구석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다. 그 스스로 확인했듯이 그는 결코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

“강도보다도 더 미운 것은, 이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의 이웃이었어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번개처럼 복도 끝에서 끝으로 내달리며 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었지요……. 아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호흡이 다시 거세졌다. 몸을 일으켜 내려다보니 ㉢여자는 불끈 쥐 주먹으로 허공을 때려눕히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 여자의 주먹은 비어 있는 허공의 어디쯤에 한 움큼의 슬픔으로 떠 있는 유영체처럼 보였다.

㉣복도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내달리는 사이 어린 딸이 흉악범의 비수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칼끝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샅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안에 남겨놓은 어린 생명에 대한 끝없는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친 듯이 203호를, 204호를, 205호를 두드렸다. 강도야!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206호를, 207호를 두들기며 또 소리쳤다. 강도야. 살인강도야. 도둑이야……. ㉤아파트 전체가 으레 공명판이 되어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수십 배 확대시켜 들려주었던건만 절박한 여자의 비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난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막 문을 두들기려던 209호였던가요. 안에서 살그머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내 딸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보여준 그 불타는 적의를 태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우르르 쏟아져 나와 혀를 차고 위로하면서 집 안을 기웃거렸을 것이다. 203호의 현관문에서 대뜸 뛰어나왔어야 했던 그녀가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여자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끼쳐요. 난 분명히 보았어요. 현관문 저쪽에서 렌즈 구멍에 눈을 대고 허우적거리며 뛰어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구경하던 그들을, 나 또한 틀림없이 보아버린 기분 말이에요.”

여자가 이번엔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댔다. 이어서 몇 개의 벽을 사이에 두고 긴 항해를 떠나는 배의 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두 번째의 커피. 남편은 여전히 책의 페이지 페이지를 넘기며, 행간마다의 의미 속으로 자신 출두해 들어가며 첫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절벽이예요, 라고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태희 역시 똑같은 말을 입속에 굴리고 있었다.

“커다란 절벽을 손으로 만지고, 할퀴고 두들겼던 거예요. 엄청난 두께와 측량 못 할 부피의 절벽…….”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 절벽이 주는 것이었다. 태희는 여자가 깨달은 절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태희는 한숨조차도 쉴 수 없었다.

남편이 증발해버린 일주일 동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떠올렸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운도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결혼 후 두 달 만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오 년이 되어 가는 지금껏, 태희는 자신의 단순한 상상력을 향해 무수한 경멸을 거듭해왔다.

- 양귀자, 「밤의 일기」-

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대하는 '태희'의 심리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여자'와 '남편'의 언행이 '태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여자'와 '태희'가 교대로 서술자가 되고 있다.
- ④ '태희'가 직접 겪었던 과거 사건이 서사 전개에 축이 되고 있다.
- ⑤ '여자'를 대하는 '태희'의 이중적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태희 ' '가 집을 비우고 시내에 나가게 된 심리적 배경에 해당한다.
- ② ㉡: 끔찍한 기억을 덮어 버리려는 '여자'의 심리에서 비롯한 말로 볼 수 있다.
- ③ ㉢: '여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여자'가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여자'와 '태희'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6번과 7번의 두 물음에 답 하시오.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폭력에 의해 나약한 개인들이 받게 되는 상처를 보여 주는 한편, 폭력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부조리한 폭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들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단서를 위 글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가 경험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 ② '여자'가 들려주는 폭력의 아픔을 '태희'를 매개로 '남편'에게 전달한다.
- ③ '태희'의 '아이'에 대한 소망을, '여자'의 폭력에 맞서는 모성을 통해 부각시킨다.
- ④ '여자'가 경험한 사건과 '남편'이 경험한 사건을 병치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 ⑤ '단순한 상상력'에 대한 '태희'의 태도를, '어린 딸'에 대한 '여자'의 태도와 일치시킨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통을 겪는 '여자'와 함께 있어 주는 '태희'의 태도는 폭력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하는 것 같아.
- ②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갖고 있지도 않은 '남편'이 '느닷없이 증발되었'던 것은 부조리한 폭력이 발동하는 현실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아.
- ③ '여자'가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대는 것은 폭력의 결과가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 ④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는 '태희'의 말은 폭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 ⑤ '커다란 절벽'으로 비유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외면과 침묵이 폭력의 작동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변변치 못했던 손기는 동서지간인 소운성에게 모욕을 당하며 지내다가 도술을 깨우쳐 돌아온다.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운성을 제압하지만 소운성은 여전히 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운성의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운성이 재촉하자 형 한림이 웃고 들어가 손기를 보고 말하였다.

(A) “옛날 인상여가 진나라 왕의 위엄에 목숨을 내걸고 항거하자, 그것을 본 같은 나라 신하 염파가 그 충정을 알고 그동안 모함하였던 일을 사죄한다며 가시를 지고 잘못을 빈 일이 있었네. 이제 그대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저렇게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을 보니 그대의 위엄이 옛사람보다 더 낮구려.”

(B) “동서의 어린 아들이 죽고 사는 일이니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천하의 황제였던 한 무제도 그렇게 사랑하던 이 부인의 죽은 넋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이 혼을 돌아오게 할 수단이 있겠습니까? 동서는 재주 있는 선비이니 시속의 운수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자란 저에게는 어찌할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형 한림이 이 말을 듣고는 손기가 이미 다 헤아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웃으며 말하였다.

(C) “옛날 제나라 환공은 제후가 난을 만났을 때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였다네. 이제 저 광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을 속였으니 만일 그대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환공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신선과 정인군자만이 귀신과 마귀를 항복시킬 수 있고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사스러운 인간이 기이한 도술을 펴니 무슨 방법으로 깰 수 있겠습니까?”

형 한림이 응대하려는 순간 갑자기 소운성이 뒷옷 왼쪽 어깨의 옷을 풀고 손에 대나무 한 쪽을 들고 밖에 이르렀다. 이는 옛날 후한 때 주발이 여 씨 일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면서 같은 편이면 뒷옷 왼쪽 어깨의 옷을 풀라고 한 일을 본받은 것이다 소운성이 애절하게 소리쳤다.

“큰 신선은 저의 애타게 근심하는 것을 구해주십시오.”

소운성이 말도 채 끝내지 않고 다시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빌었다 손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소운성이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염파가 가시를 진 것처럼 지난 잘못을 빌며 간청하자,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소운성의 기상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슬쩍 웃으며 말하였다.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어찌 지금은 이토록 공경을 다하시는가?”

말을 마치고는 급히 나아가 예를 올리고 맞아들였다. 손기가 시녀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자 마음이 급한 소운성이 손사래를 쳤다.

“차는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제발 선생은 큰 술법을 베풀어 위태로운 목숨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의 도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하여 번거롭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네. 내가 본래 자취를 감추어 세상 사람과는 서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신중하지 못하여 아내자를 통하여 말이 누설되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라, 동서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염려할 것 없네. 단지 잠시 운수가 좋지 않아 집안에 액운이 생긴 것이네. 동서의 둘째 아들은 오래 살고 복을 오래도록 누릴 아이니 분명 무사할 것이네. 이제 잠깐 평안히 앉아서 내가 일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그러고는 즉시 철로 된 채찍을 들어 땅을 세 번 긋고 입으로 주문을 외우니 홀연 신령스러운 바람이 일어났다 동시에 날이 어두워지며 붉은 안개가 끼더니 공중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말 울음소리가 났다. 손기가 형 한림과 소운성을 돌아보며 외쳤다.

“두 사람은 잠깐 피하시오.”

형 한림과 소운성이 문밖으로 나가서 몰래 안을 엿보니 안개 속에 한 신령이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쓰고 몸에 황금 갑옷을 입고 손에 큰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키는 팔 척이나 되었는데,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과 누에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수염은 세 갈래로 나 있었다. 신령이 손기에게 몸을 굽히며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천사(天師)께서 소신을 부르신 것입니까?”

손기가 화를 내며 큰소리로 명령하였다.

“옥황상제께서 그대에게 중국을 둘러싼 오랑캐를 복종시키고 송나라 조씨 사직을 뒷받침하여 도우라고 명하였으니, 그대의 소임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한데 지금 어떤 요사한 인간이 허탄한 도술을 부리며 이곳에서 방자하게 구는데도 다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그대가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면서도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을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대는 급히 가서 소씨 집안의 어린 아들의 넋을 돌려보내고 요망한 놈을 잡아 소씨 집안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 신령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는 거센 바람과 우레를 몰고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올라갔다. 형 한림과 소운성이 이 모습을 보고는 머리칼이 쭈뼛 곤두설 정도로 두려워 감히 숨을 쉬지 못하였다. 잠시 후 바람과 비가 그치고 날이 다시 밝아졌다. 손기가 소운성과 형 한림을 청하여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담소하였다 시간이 얼마 흐르고서 손기가 소운성에게 말하였다.

“동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나. 어린 아들이 벌써 깨어났을 것이네.”

소운성이 이 말을 듣고 황망히 손을 올려 ㉠ 사의를 표하고 바빠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기가 인사가 지나치다고 사양하며 당부하였다.

“아이가 다행히도 요술에 목숨을 상하지 않았네. 그러니 동서도 광대의 목숨을 살려주고 엄하게 훈계하여 돌려보내면 이 또한 음덕이 될 것이네.”

- 작자 미상, 『영이록(靈異錄)』-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하면서 서술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파악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 기>

위 글에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ㄱ. ‘손기’에게 모욕을 준 바 있는 ‘소운성’의 오만한 태도가 고쳐지지 않음.
- ㄴ. ‘소운성’의 아들이 요사스런 광대에게 혼을 빼앗김.

- ① ㄴ의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형 한림’이 중재하고 있다.
- ② ‘소운성’이 ‘손기’를 ‘큰 신선’으로 지칭하고 지난 잘못을 빌며 ‘간청’하여 ‘손기’가 ‘소운성’을 맞아들이는 것은 ㄱ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손기’는 자신이 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자신하며 ‘소운성’을 안심시키고 있다.
- ④ ‘손기’가 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 한림’과 ‘소운성’은 ‘손기’의 뛰어난 능력을 목격하고 있다.
- ⑤ ‘손기’는 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내려온 ‘신령’에게 ‘광대’를 잡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10. [A] ~ [C]에서 인물이 ‘고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 ㄱ. 고사 속 인물과 비교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운다.
- ㄴ. 고사 속 인물과 자신을 대조하여 겸손하게 거절한다.
- ㄷ. 고사 속 인물의 행적과 상대방의 행적이 유사함을 강조한다.
- ㄹ. 고사 속 인물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며 울분을 표출한다.
- ㅁ. 고사 속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그의 선행을 본받도록 유도한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1. ‘소운성’이 ㉠의 상황에서 했음직한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분에 제 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 ① 기사회생(起死回生)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승승장구(乘勝長驅)
- ⑤ 일취월장(日就月將)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둑 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열네 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를

㉡ 닭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박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윗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독 안에 실린 슬픈 물같이

㉢ 속살대는 이 시골 밤은

찾아온 동네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이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어니

이 집 문고리나 지붕이나 , ,
늙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일러라.

* 이치대던 : . 성가시게 칭얼대던

- 정지용 「 옛 이야기 구절 」 -

(나)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려요.

㉠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리고개

아베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믄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A) 저승길 배고플랴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萬術) 아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 *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축문 :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 엄첩다 : '대견하다'의 경상도 방언.

* 응감 : 마음에 응하여 느낌

- 박목월 「 만술(萬術) 아버의 축문(祝文) 」 -

(다)

여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르겠네

㉠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갈을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 *에 입을 뵈셔 즐기더니

니리*를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것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 어디메오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셔 본 적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입을 사랑할꼬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

엇언지 임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심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 정학*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어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된 후에도

임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에 없는 것만 얻어

부용화(芙蓉花) 옷을 짓고 목란(木蘭)으로 주머니 만들어

하늘께 맹세하여 임 섬기랴 원이러니

조물이 시기 하는가 귀신이 휘방하는가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 광한전 백옥경 :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

* 니리 : 아양

* 심기시고 : 주시고

* 정학 :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김춘택, 「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 -

1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분위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상을 전개하면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화자의 현재 처지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共感'이라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감응(感應)'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감과 감응은 슬픔이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 사물과 자연물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와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와 (나)는 시적 표현과 내용을 통해 이러한 공감과 감응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를 통해 화자와 어머니 사이에 공감이라는 정서적 공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기름불'이 화자의 이야기를 깜박이며 듣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고달픔에 감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문고리', '지붕', '밤하늘'을 함께 제시한 것은 사물과 자연물이 서로 감응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만술 아버지가 '아베도 알지려요'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아베'가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느껴느껴'로 보아 '굶은 밤이슬'은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인 '망령'이 감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4.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② ㉡ : 배경을 의인화하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 ~ ㉣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는 하나의 시공간 내에 퍼지며 공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에 통합되면서 통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공시적 확대	㉠의 청자는 '아버지'에서 '어머니', '누이', '그 사람'이라는 가족들로 확대된다. ①
	㉡는 '찾아온 동네사람들'을 통해 화자의 이야기에서 동네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②
통시적 확대	㉠는 ㉢와 ㉣의 '그 예전부터' 전해 온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된다. ③
	㉠의 화자는 ㉢의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의 일부로 통합된다. ④
	㉠의 청자는 ㉣의 청자인 '늙으신 아버지'의 일부로 통합된다. ⑤

1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현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고, [B]에서는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화자의 과거 처지와 현재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읽고 (다)를 감상해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정철의 「사미인곡」 「과 속미인곡」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별사미인곡」의 첫 부분이다. 정철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 두 작품을 창작했다면 김춘택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다가 당쟁에 휘말려 유배당했을 때 「별사미인곡」을 지었다. 정철의 두 작품에는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김춘택은 이 화자를 끌어와 '저 각시'라 칭하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 ① '광한전 백옥경에 입을 뒹셔 즐기더니'는 '저 각시'가 임의 곁에 살며 임의 사랑을 받았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군.
- ②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로 보아 화자는 '저 각시'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③ '원앙침 비취금에 뒹셔 본 적 전혀 없네'는 '저 각시'와 달리 임의 곁에 있어 보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군.
- ④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로 보아 화자가 임과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된 후에도 임 향한 이 마음 / 이 변할손가'는 임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1~3] 유실물

1. ③ 2. ⑤ 3. ①

[4~7] 밤의 일기

4. ② 5. ⑤ 6. ④ 7. ③

[8~11] 영이록

8. ② 9. ⑤ 10. ① 11. ①

[12~17] 정지용 「옛 이야기 구절」, 박목월 「만술아버지의
축문」, 김춘택 「별사미인곡」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① 17. ④